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 금융감독원	보도 참고 자료			
보도	2018. 8. 22.(수) 조간	배포	2018. 8. 21.(화)	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	박종각 부국장(3145-8738), 안태승 수석(3145-8720) 정관성 팀 장(3145-8732), 김한수 조사역(3145-8734)		

제목 : 일상 속 「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」 시리즈 [3/4] - [금융꿀팁 200선 - ⑨6]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-

-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
 - 금융소비자정보포털 “파인”(FINE, fine.fss.or.kr)에 게시하고 있음

「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」 시리즈

순서	내 용
1	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?
2	‘실손보험 있어요?’ 허위·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
3	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
4	방심은 금물!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

-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, “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야지”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
 - 이에 세 번째 테마로,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 유의사항을 불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

<불임> 일상 속 「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」 - 정비업체 이용시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*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잡학사전

◆ 3가지 대처요령 ◆

- ①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.
- ②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세요.
- ③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, 사기 의심시 신고하세요.

①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.

- (사기유형)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,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
-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·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

<보험사기 적발사례>

- ◊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
-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하였다고 사고접수 (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28백만원을 편취)

- (유의사항)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·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·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음
- “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”라는 주변의 유혹에 혼혹되지 말고,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게 중요

②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세요.

- **(사기유형)** 자동차 사고 시,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·렌트업체 등이 공모하여
 -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,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

<보험사기 적발사례>

◇ B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,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 시켜,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

(총 1,135건(5.3억원)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하여 차주들과 분배)

- **(유의사항)**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임
 - “이 정도는 괜찮겠지!”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

③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, 사기 의심시 신고하세요.

- **(사기유형)**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
 - 특히,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

<보험사기 적발사례>

- ◇ C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('15.5월~'16.4월까지 총 1,031건(8.5억원))
- ☞ 문제 정비업체의 특징 : 렉카(사고 견인차) 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를 입고하게 유도하여, 허위(과잉) 수리 등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

- **(유의사항)** 허위·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,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음
 -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은 권유하거나,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 내역서를 조작(변경)해주는 업체,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을 가능한 이용을 피하시기 바람
 - 아울러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,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할 것을 권유*
- *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리며,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前 거리,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(입고)가 바람직
- ※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됨.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

- ▶ 금융감독원 신고 전화(1332→4번→4번), 인터넷(보험사기방지센터 <http://insucop.fss.or.kr>)
- ▶ 보험회사 :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
(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→ 보험사기신고 → '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' 참고)